

현직 한의사의 열등감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질적연구

배진수, 김경옥

동신대학교 광주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

Narrative Inquiry on Current Korean Medicine Doctors' Experience of Inferiority Complex: Qualitative Research

Jin-soo Bae, Kyeong-ok Kim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Dongshin University Korean Medicine Hospital

Received: August 23, 2022

Revised: September 19, 2022

Accepted: September 22, 2022

Correspondence to

Kyeong-ok Kim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Dongshin University Korean Medicine
Hospital, 141 Wolsan-ro, Nam-gu,
Gwangju, Korea.
Tel: +82-62-350-7206
Fax: +82-62-350-7141
E-mail: avecinok@hanmail.ne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vivid and in-depth stories, of inferiority experienced in the lives of current Korean medicine doctors.

Method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wo participants. Collected research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narrative inquiry method suggested by Clandinin and Connelly.

Results: Common themes found in participants' narrative were summarized, by 'comparison with others' and 'various attempts to overcome inferiority feeling'.

Conclusions: This study is meaningful at three levels: personal, social, and practical. Also, it provides readers with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the way they cope with their inferiority complex, which various people experience in different contexts.

Key Words: Korean medicine doctor, Inferiority complex, Narrative inquiry, Qualitative research.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인간은 타인과 어울려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열등감을 한 번씩 느끼면서 살아간다. 열등감과 관련된 선구자는 Adler로서, 열등감을 사회·경제적 조건, 신체적 특성, 능력 등을 타인과 비교하여 자신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부족할 때 경험하는 심리-정서적 상태로 보았다. 모든 사람들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보다 더 나은 자신을 만들기 위하여 동기부여로 작용하는 점에서는 순기능이지만,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자기비하, 부정적 자기신념, 무능감과 같은 양상을 보이며¹⁾ 열등감 콤플렉스 또는 우월감 콤플렉스로 빠지기도 한다. 개인심리학은 개인이 훈련을 통해서 약점을 보상하려는 노력이 훌륭한 기술이나 힘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연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열등감이 인생을 긍정적인 방향을 이끄는 동기로 작용한다²⁾. 그러나 실제로 '열등함(혹은 열등성)'과 '열등감'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열등감이란 주관적인 해석이며 일정한 가치판단의 의존하며 결코 실재하는 열등성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역설했다³⁾. 결국 객관적인 현실에서는 부족함이나 결핍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개인이 그것을 열등하다고 느끼고 해석하는 순간 그 개인은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열등감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양적 연구에서 아德勒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열등감반응에 대한 효과⁴⁾, 대학생의 열등감과 집착과 관계에서 사고의 매개효과⁵⁾ 등의 연구가 있었으며 질적 연구로는 앞서 언급된 이희백의 열등핵심감정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와 열등감 극복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⁶⁾를 찾아볼 수 있었다. 열등감과 관련한 기존 주류 연구 방법으로서의 다양한 양적연구들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열등감은 개인이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의 주관적인 해석이 담긴 내용으로서 사람들마다 열등감을 인식하는 지점은 저마다 다르며, 그 열등감을 겪으며 다루어어나가는 방식도 각자 상이할 것이다. 이에 연구자는 사람들이 열등감을 어떻게 인식하고 느끼고 있으며, 그것을 삶 속에서 어떻게 다루어가는 지 질적 연구를 통해 깊이 있게 알고자 하였다. 특별히 연구자의 입장과 동일한 맥락의 전문직 동료들의 입장을 생생하게 들어보고 싶었다.

우리나라에서 전문직의 사회적 인식과 평판은 대개 높은 편이다. 특히 의료인들은 높은 급여가 보장되는 직군으로 인

식되어 그들의 실제로 겪는 주관적인 업무 강도 수준과 상관 없이 대외적으로 사람들의 평판과 기대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의료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의료인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로 5개의 직군이 있으며 한의사도 우리나라의 의료인으로 국민건강 및 보건의료에 한의 치료로서 다방면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원적인 의료 면허가 존재하는 특수한 사회적 상황 특성상 의사와 한의사간의 직역 갈등은 오래 전부터 있었으며 여전히 크고 작은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한의사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입장도 우호적이거나 악의적인 입장으로 양분된다. 이러한 현상 상황에서 연구자는 전문직종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열등감을 경험했으며 다른 한의사 동료들도 비슷한 열등감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나아가 그 열등감의 경험을 깊이 파악해보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방법의 접근이 적합하다고 생각되었다. 특히 내러티브 탐구를 채택함으로써 현재 한의사로서 살아가고 있는 연구자가 느껴왔던 열등감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료 한의사들의 열등감의 이야기를 생생하고 깊이 있게 탐색하는 것은 동료 의사들로 하여금 열등감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볼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여 본 연구에 착수하였다.

2. 연구자 이야기

연구자는 한의사 면허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임상한의사로서 현재 한의과대학 부속병원의 한방신경정신과 전공의로 근무하고 있다. 동시에 지역 소재 국립대학의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임상심리전공에 재학하며 다양한 심리학 전공과 목들과 더불어 상담 및 심리치료 이론 및 질적연구방법론을 수강하였다. 연구자는 오래 전부터 정신과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졌으나 현재는 한의사로 살고 있지만 정신건강과 관련된 전문가로서 주류역할에서 벗어나 있다고 여겼고 전반적인 한의사의 위치에 대해 의사집단들과 비교하며 깊은 열등감에 빠졌다. 그러나 신경정신과 전공의로서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선택한 일반대학원 진학은 다양한 내용들을 공부하며 치료현장에 접목시키려는 노력으로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를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고, 초기에 느꼈던 열등감을 차츰 긍정적인 방향으로 탈바꿈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임상에서 약물치료가 주류가 되는 현실과, 의사집단의 한의사집단에 대한 폄하로 인한 좌절경험을 빈번하게 느꼈으며 다른 한의사들은 이러한 느낌들을 어

떻게 극복해 내는지 공유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내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내러티브 탐구

내러티브 탐구는 인간의 경험을 이야기로 풀어낸다. 경험을 이야기로 만들어 낸다는 것은 인간의 삶의 기저가 되는 가치, 세계관, 관습, 시대환경들을 반영하고 인물들 사이의 역동적인 교류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통시적 관점에서 인생 이야기라는 큰 하나의 물줄기를 형성하게 되고, 각각의 인생과 그 안의 다양한 내러티브 속에서 변화되는 다채로운 물줄기의 양상은 생생하게 경험을 들여다보는 간접체험의 경험을 제공하며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 방향성에 대한 의미 있는 통찰이 가능하게 하기도 한다⁷⁾. 연구자 자신의 이야기와, 연구참여자와의 교류가 단순히 연구를 넘어 독특한 체험을 풀어헤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재구성하고, 사회문화적 맥락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는 것이 내러티브 탐구이다.

내러티브 연구의 선구자인 Connelly, Clandinin은 내러티브 탐구에 있어 핵심적인 개념인 삶을 살아내고(living), 이야기하고(telling), 다시 이야기하고(retelling), 다시 삶을 살아내고(reliving)의 내용을 제시하였다⁸⁾. 이는 현재 한의사로서 살아가고 있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살아온 개인적인 열등감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변 동료한의사들의 열등감의 경험은 어떠했는지 그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고, 앞으로도 한의사로서 살아가다가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열등감의 경험들을 극복해가며 다시 살아낼 수 있도록 통찰을 제시하고자 열등감의 경험을 내러티브적으로 풀어내려고 한다.

2. 연구 퍼즐 고안하기

연구퍼즐은 연구문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연구자의 개인적 경험으로부터 출발한 '열등감'의 주제를 동일한 한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과거에서부터 현재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호기심을 가지면서 출발하게 되었다. 본 연구자는 한의사 면허 취득 이후 수련과정을 겪으면서 의료현장에서의 한의사는 의료인에 포함되는 직군이기는 하나, 실질적인 주류세력인 의사들에 비해 한의사 입지가

약하다고 느낀 것을 '열등감'으로 인식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문의 취득을 위한 수련과정으로 진로를 정하고, 대학원에서 임상심리를 전공하며 전문성을 확대하겠다는 생각으로 열등감을 극복해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자의 경험으로 미루어보아 동일 직군에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다른 한의사들은 연구자와 같은 열등감을 느낀 적이 있는지, 혹시 있었다면 어떤 열등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것을 대처하기위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에 착수하였다.

연구자는 특별한 사례를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목적표집(purpose sampling)의 방법을 통해 현직 한의사의 삶 속에서 경험한 다양한 열등감의 사례를 모으고자 하였다. 특히 한의사가 되기 이전의 일생 과정에서 느낀 열등감과 대처방식, 한의사가 되기까지의 과정과 한의사가 되고난 후의 생겨난 열등감의 다양한 면면과 그것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삶의 생생한 경험들을 내러티브 연구 방법을 통해 알아보려고 한다.

3. 현장 속으로 들어가기

연구 참여자 선정은 한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동문회 소속 기수별 메신저를 활용하여 연구 참여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별도로 질적 연구에 관한 설명을 세부적으로 곁들인 연구 참여 안내문을 첨부하였다. 이후 자발적으로 2명이 연구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으며, 연구 진행 후 1명이 추가로 연락을 취해왔으나 질적 연구에 관한 문의에 연구 참여를 망설이다가 연구 참여 의사를 거절하였다. 연구 참여자를 2명으로 결정한 후, 본 연구 시작 전 질적 연구에 그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본 연구 주제, 연구 방법, 심층 면담의 진행과 관련한 내용, 익명성 및 비밀보장, 녹취와 관련한 추후 사전 자료 폐기 등과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동의서 작성과 참여자 기본 정보를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특별한 가명이 부여될 것을 사전 고지하였다.

4. 현장 텍스트 구성하기

자료 수집은 2022.05.21. (현진(가명)), 2022.05.26. (정민(가명)) 양일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단회성 심층면담으로 진행되었다. 면담 소요시간은 약 90분~100분간 진행되었다. 현진의 심층면담은 일정상 비대면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ZOOM' (Ver. 5.10.4. Zoom video communications, inc.)을 이용하여 진행하였으며, 녹취 동의와 같은 맥락으로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f Participants

Name	Sex/age	Current position	Undergraduate major	Marital status
Gwon Hyeonjin	Male/36	GP (own clinic)	Bioengineering	Married
Son Jeongmin	Male/37	GP (in service)	Health	Married

화상회의 과정을 녹화하여 전사과정은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였다(Table 1). 정민의 심층면담은 연구자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의 상담실에서 대면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녹취 후 전사과정에서 NAVER CLOVA NOTE 프로그램(Ver 1.9.2)의 도움을 얻어 축어록을 작성하였다. 이후 연구텍스트 작성 후 초안을 연구참여자들에게 건네어 자신의 경험이 충분히 연구텍스트에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피드백을 받는 절차를 거쳤다.

5. 연구 텍스트 구성하기

연구자는 현장 텍스트를 수차례 통독하면서 두 연구 참여자가 풀어낸 이야기들을 어떻게 재구성해야하는지 분석하고 고민하는 절차를 거쳤다. 현재 임상현장에서 한의사로서 비슷한 환경에서 근무 중이면서도 그들의 서사에서 나타난 열등감과 관련한 이야기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했다. 이를 내러티브의 '3차원적 공간' 안에서 분석하고 재구성해야 하는 것은 연구자가 판단해야 했다. 먼저 시간 경과의 흐름 따라 각각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자주 언급되는 단어나 배경, 갈등상황과 관련된 주변 인물들은 없는지 분석하며 세부 이야기의 주제들을 메모하였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병치해놓고 비교, 대조해 본 뒤 공통성이 있는 부분과 차이점이 있는 부분을 주제별로 묶어 분석해보았다. 이후 참여자의 한 인생을 시간적으로 관통할 수 있도록 하여 현진과 정민의 삶에서 각각 세 개의 이야기로 구성하였다.

III. 결과

1. [현진]의 이야기

1) 엄격한 아버지의 너무 높은 기준, 채워지지 않는 성취

현진은 치과의사인 아버지의 엄격한 훈육으로 인해 자연스레 의과대학에 입학해야한다는 압박감을 받아오며 자랐다. 당시 그는 전국에서 유명한 학군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공부를 곧잘 해왔고 학업 성

취가 높은 편이다보니, 고등학교 진학 이후 성적으로 상위권 학생이라면 한번쯤 고민하게 되는 의과대학 진학을 본격적으로 목표로 삼았다.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곧잘 성적을 잘 유지하다가, 이과를 선택하며 수학 심화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시기에서 좌절감과 열등감을 크게 경험했다.

‘왜 수학이라는 게, 수학적인 머리가 있어야 하잖아. 다른 친구들은 조금만 해도 잘 나오는데, 나는 하루 종일 수학을 붙들고 있다시피 하는데도 이렇게 밖에 안되는구나, 그런 것에서 열등감이 엄청 생기는 거지.’

이후 현진은 의과대학 진학에는 실패했으나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제도를 이용하여 학부 졸업 후 전문대학원 과정을 통해 의사가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다. 아버지의 강한 압박이 목표 설정에 있어 큰 영향을 끼쳤지만 본인이 느끼기에도 대학 졸업 후 전문직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이후 의전원을 진학하기에 유리한 생명공학 전공을 선택했다. 현진이 살던 동네는 지역에서 진학률이 높기로 소문난 학군이었고 현진의 고등학교 동창들이 대부분 대학 진학에서 우수한 실적을 내었기 때문에 본인은 의과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느끼면서 차선책으로 진학한 생명공학과에서도 온전한 대학생활을 누리지 못했다. 얼른 그곳을 벗어나서 의전원을 진학하고 싶다는 마음가짐 하나로 친구들과의 교류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진학을 위한 공부에 매진하였다. 고등학생 때부터 현진은 본인이 기대한 성취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오로지 노력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절대적인 시간을 타인들보다 더욱 많이 투자해야 본인이 원하는 학업의 수준 성취 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나는 여길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 1학년 때부터. 의전에 가기만하면, 그때 가서 학교생활을 해야겠다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스스로 학력에 대한 열등감이 있으니까.’

‘학교 축제할 때도 밖에서 폭죽 터지고 가수들이 노래 부르고 하면 진짜 나가서 놀고 싶잖아. 그런데도 도서관에

앞아서 공부를 했거든. 그때는 진짜 내가 여기서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2) 한의사가 되기까지

이후 현진은 의전원 입학시험에는 낙방하고, 의전원 진학 실패의 차선책으로 삼아 한의학 전문대학원(이하 한의전)에 입학했다. 그러나 한의에서의 1년을 보내는 도중, 현진은 유급을 경험하며 또다시 좌절감을 느꼈다. 1년이 지난 후 학기를 재이수하는 과정에서 학부과정에서 누리지 못한 다양한 대학생들의 경험을 한의전 진학 후 누리겠다는 마음가짐은 사라지고, 다시 반복되는 시험에만 매달리며 다시 유급을 당하지 않으려면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업 성취를 위해 학교생활과 개인 취미활동 등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또다시 이어진 것이다.

‘한의전 때도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었는데, 유급을 한번 당하니깐 엄청 열등감이 많이 생겼지. 아무래도 같이 들어왔던 사람들 중에 나는 한번 미끄러져서 1년 늦게 되는거니까. 그리고 언제든 다시 미끄러질 수 있었던 생각이 들더라고. 남들보다 준비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도 결과는 더 많이 안 나오니까 그런 것에서 열등감이 있지.’

유급을 경험한 후 그는 입학 전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노력을 쏟고 싶었으나, 유급당한 학생은 수련의 과정에 잘 선발되지 않는 것을 보고 나서 본인은 개원의로의 길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본인이 잘해내지 못하여 유급을 당하긴 했기 때문에 이것은 열등감과 별개로 유급으로 인해서 진로가 제한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현진은 한의전을 다니면서 수 십 번의 크고 작은 시험들을 거쳐 왔지만 그나마 한의사 국가고시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는 현진의 마음이 조금 편했다. 그동안 집단 안에서 상대적인 순위로 성적을 매긴 것으로 성취를 평가했다면 국가고시는 일정 성적만 넘으면 면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현진의 열등감은 학생 때부터 늘 함께한 존재였으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그저 특별한 방법 없이 자신의 시간을 오롯이 학업에 매진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현진은 동료들과 어울리거나 개인 취미활동 시간을 희생해야 했다.

3) 열등감이 아닌, 소외감

국가고시를 패스한 이후 현진은 학교를 다니면서 느꼈던 성취와 관련한 열등감은 특별히 느낄 일이 없었다. 그는 수련과정을 밟는 대신, 개원을 준비하여 본인의 한의원을 오픈했다. 그러나 임상현장에서 진료를 하면 할수록 그는 열등감보다는 점점 소외감을 느꼈다. 환자를 진료하면서 제도적으로 가로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은 같은 의료인으로서 의료현장에서의 여러 권한에 대해 열등한 위치에 있어서 느껴지는 열등감이 아닌, 사회에서 배제되었다는 느낌이 들게 하는 일종의 소외감이었던 것이다.

‘제도적으로 우리는 소외됐잖아. 정부도 내가 봤을 때는 한의사를 버리다시피 한 것 같아. 정부가 우리에게 해 주는 게 없잖아. 예를 들어 재활병원을 운영한다고 해도 한의사 배제, 코로나와 관련한 진료를 하려고 해도 한의사가 배제. 제도적으로 전부 막아놓고 있는 게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열등감이 아니라 아예 소외감 같은 거지. 열등감은 그래도 좀 비슷한 데에서 경쟁하다가 느껴지는 것이 열등감이겠는데 아예 배제를 시켜놓으니 경쟁에 참여하지를 못 하잖아.’

‘아무래도 대학병원 교수 의사들이 하는 말들이 환자들에게는 진리가 되고, 우리가 환자들에게 하는 말들은 신뢰감이 떨어져 버리는 거야. 의사들은 무조건 한방, 한의사하는 것들은 전부다 하지 말라고 환자들에게 얘기하지. 침 맞지 마라, 한약 먹지 마라, 한의원 왜 가냐. 이런 소리들을 하니까.’

현진은 자신들을 찾아온 환자들도 점차 한의학에 신뢰를 잃어가는 상황이 안타까웠다. 그는 열등감은 어느 정도 조건이 공평하게 주어진 상황에서 경쟁을 하다가 뒤처지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의 입장에서 임상현장에서 겪는 경험들은 분명 소외감을 느낄 만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의사와 한의사는 아예 다른 직업이라는, 의료인이라는 특정한 그룹에 묶기 보다는 아예 다른 직역이다 하고 생각하기로 했다. 한편 동료 한의사들과의 교류에서는 열등감을 경험하지 않았다. 다만 자신보다 특출한 능력을 가진 동료들을 보며 동기부여를 얻는 방식으로 한의사라는 직역에 대한 긍정적 강화를 꾀하고 있었다. 또한 돈을 벌기위한 수단으로서의 한의사의 위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현진은 이제 굳이

의사집단과 비교하며 열등감을 만들어내려 힘들게 하기 보다는 한의사라는 독립적이면서 뚜렷한 특성을 가진 직종, 적당한 수준의 수입으로 만족할 수 있는 직종임을 늘 다짐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

2. [정민]의 이야기

1) '지기 싫어하는', '남 앞에서 만만해 보이고 싶지 않은'

정민은 어렸을 적부터 몸이 약했다. 또래보다 키도 작고, 왜소하여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태권도 학원을 다니면서도 늘 맞기만 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모든 것을 '피해서 다니는' 데 익숙했다. 누군가와 갈등이 있거나 싸움이 날 것 같으면 피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어렸을 적 정민이 살던 동네 근처는 변화가였다. 그러다보니 그런 상황들을 애써 피하려고 해도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동네 불량배나 깡패들에게 끌려가 돈을 뺏기기도 하고,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고 억울하게 맞기도 하였다. 학교에서도 정민은 친구들이 놀리거나 괴롭힐 때 신체적으로 우위에 있는 친구들 앞에서는 쉽게 주눅 들고 위축되어 대응을 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이런 기억들로 정민은 아주 어릴 때부터 남에게 지고 싶지 않고, 만만해 보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지내왔다. 그 즈음 또래들이 대부분 그렇듯 그도 태권도 도장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긴 했지만 겨루기를 할 때마다 지기 일쑤였다. 더 이상은 지고 싶지 않았다. 왜소한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싶어졌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을 길러야 했다. 정민은 어렸을 적부터 맨몸 운동을 하며 힘을 길러야겠다고 생각하며 매일 팔굽혀펴기와 윗몸일으키기 등을 하며 근력을 키우려고 노력했다.

'힘이 세지고 싶다. 누가 나를 봐도 무시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운동을 엄청 꾸준히 했어.'

대학에 들어간 이후 그는 학군단에서 대학생활을 했다. 체육관련 전공학생들이 많아 외관상 신체적으로 우월하거나, 운동능력이 탁월한 그들 틈에서도 정민은 무엇이든 질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열심히 자신의 신체를 단련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리고 보니, 본인도 인지하지 못했던 사이에 주변에서 아무도 그를 무시하거나 해코지를 하려는 사람은 없게 되었다.

장교로 임관 이후에 군 생활을 할 때도, 정민은 사병들 앞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자신의 신체적 열등함을 내비치지 않으려 부단히 애를 써야 했다. 어릴 적부터 다져온 근력운동 덕분에 탄탄한 근력은 자신이 있었으나, 체력은 상대적으로 처졌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지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한 여름 피약벌에서 열사병으로 탈진하면서도 이 악물고 버텨내려고 노력했던 정민의 삶은 신체적 열등감을 이겨내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의 과정이었다.

'지는 것에 대해 엄청 마음에 계속 담아두고 있다가, 다른 부분에서 좀 이기든가, 약한 점은 극복해야지라고 생각하며 계속 무언가를 해왔던 것 같아. 아니면 무언가를 잘 못하더라도 내가 좀 더 키워내서 잘해내야지 라는 생각으로 바꾸려고 노력했잖지.'

본인이 생각하는 신체적 열등함을 이겨내려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온 결과, 매일 꾸준히 해오던 근력 운동은 탄탄한 신체로 보답했으며 자신감은 저절로 뒤따라왔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주위에서도 본인을 함부로 대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다. 정민은 신체적 열등감으로 회피만 해오던 삶에 정면으로 맞부딪히면서 비로소 자신감을 얻게 된 것이다.

'운동을 하고 몸이 좋아지면서 조금씩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어. 그리고 그 작은 성취감을 바탕으로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 마다 포기하거나 회피해 버리는 것이 더 편한 건 알지만, 불편한 것을 미리 파악하고 선택해서 극복하려고 하다 보면 극복할 수 있는 게 꽤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 나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지는 않았지만 무언가 내가 잘하려고 노력해서 만들어진 내 모습을 인식하게 된다면 긍정적인 일 수 있게 되더라고.'

2) 학군단, 응원단 생활을 통한 자신감의 고양

어렸을 적부터 정민은 '회피'에 능숙했다. 힘든 일을 마주하지 않게 되면 본인이 편하다는 것은 알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본인에게 어떠한 변화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신체적 열등감을 극복하고, 나아가 자신감을 조금 더 얻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바로 학군단과 응원단이다. 남들에게 약해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있어 학군

단은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정민의 눈에는 학군단 안에는 정신적이든, 신체적이든 우월해 보이는 동기들이 많아보여서 그 무리 속에서도 뒤쳐지지 않으려 한참을 노력해야 했고, 그에게는 노력 이상으로 더 필요한 것이 있었다. 바로 자신감이었다. 그래서 그는 학군단에서 필요한 역할과 특정한 일로 선발되어야 할 일이 있을 때 무조건 자신해서 나섰다. 특히 그는 돈 관리에 있어서 본인이 취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학군단 내에서 일부러 총무를 맡겠다고 했다. 사람들 앞에 나서서 무엇을 하는 것을 상당히 수줍어했던 그는 청중 앞에서 발표할 일이 있을 때 자신해서 먼저 발표를 하기도 했다. 취약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남들 앞에서 의무감으로 해내야 하는 입장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졌다. 그 당시에는 쉽지 않았으나, 돌아보니 그것은 그에게 정면 승부로서 성취감과 자신감을 안겨주는 또 다른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학군단과 더불어 또 다른 활동에서 자신감을 고양시키게 된 계기는 응원단의 활동이었다. 20대 초반 한창 이성에게 의 관심이 최고조일 시절, 정민은 학군단을 하면서 얻게 되는 자신감으로 응원단 활동을 하면서 남들이 자신을 조금 더 주목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냈다. 그러나 특정 응원 안무를 동료들과 같이 준비해서 공연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늘 자신보다 다른 동료들이 더 멋있어 보였고 잘하는 것 같았으며 남들도 다 자신 말고 다른 사람을 쳐다볼 것만 같아 매우 신경이 쓰였다. 서로 안무를 가르쳐주고 배우는 과정에서 동료들이 특별히 자신에게 안무를 가르쳐주려고 할 때마다 정민은 '내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가르쳐주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실제로 어느 누구도 그렇게 티를 내지 않았지만, 웬지 모르게 그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일종의 자격지심이었다. 타인과 비교당해서 내가 못하는 사람이 될까봐 전전긍긍하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때로는 응원단을 같이 하는 동료들과 술을 먹으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정민은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았다. 응원단 친구들의 인정과 격려는 부족한 자신의 실력을 메꾸기 위한 노력의 시작이었다.

'내가 열등하지 않다는 것을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필요했나봐. 괜히 혼자서 내가 못하다고 여기게 되고, 그런 생각이 들면 실제로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게 되는 거지 항상. 응원단 연습도 남들보다 내가

못하니까 더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일부러 더 나서보고.'

시간을 들여 안무연습을 하고 나니 정민은 공연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다. 노력을 하니까 되더라, 하는 마음가짐이 생기면서 운동을 매일같이 하던 어린 시절, 약하다고 생각한 것을 먼저 나서서 해보는 학군단, 그리고 응원단까지 모두 그에게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저 회피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다보면 어떻게든 극복될 수 있을 것 이라는 확신의 경험을 스스로 쌓아가고 있었다.

3) 주변 사람들이 보는 한의사, 그리고 그의 목표

정민은 고등학교 때는 정말로 한의사가 되고 싶었다. 한의대를 지망하였으나 입시에서 실패 후 보건계열 전공으로 진학을 했다. 대부분 해당 전공을 살려 취직을 하기도 했으나 당시 많은 사람들은 전문대학원 시험을 준비하기도 했다. 그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대학에서 같은 과에서 오랫동안 여자친구를 만나왔는데, 여자친구는 정민이 군대를 다녀 온 사이에 학부를 졸업 후 지방 국립대의 의전원에 입학하여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 둘은 오래 만나며 결혼까지 약속한 깊은 관계였다. 정민의 여자친구는 본인이 의사가 될 사람이었으므로, 배우자도 같이 의사가 되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녀는 정민이 전역하기 전부터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권하며 무조건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정민은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본인이 어떤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든 생계에 걱정은 없겠거니 여겼고 특별히 의사나 한의사나 본인에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다. 시험을 준비한 첫 해에는 아쉽게도 모든 학교에서 탈락하고, 두 번째 시도 끝에 한의전문 최종합격을 하게 되었다. 그는 한의사가 될 자신의 미래에 대해 전혀 아쉬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본인이 고등학교 때 꿈꿨던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 걱정이 없었지만 여자친구의 입장은 달랐다. 자신의 배우자가 한의사가 될 거란 사실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다.

'사실 나는 그냥 내가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고 별 생각을 안했어. 떨어진 건 아쉽지만 내 점수가 그렇게 된 거였으니까. 그러나 여자친구와 맨날 싸우면서 열등감을 느끼기 시작했어. 그녀 주변의 의사들이 한의사들을 무시하는 이야기, 한의학의 비과학적인 것을 꼬집는 것?

그리고 교수들이 대놓고 한의사와 한의학을 비하하는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여자친구가 권위적인 사회 내에서 아니라고 반박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고 나니 아 우리가 힘이 없구나...'

한의전을 졸업 후 한의사가 되고 나서 정민이 겪는 열등감은 바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적나라하게 이어졌다. 대학별로 운영되는 커뮤니티에서 그는 실제 의사, 의과대학생, 심지어 이공계 학부생들이 주도하고 있는 한의학에 관련한 의도적 폄훼를 접하면서 이것이 바로 사회가 한의사를 바라보는 수준인가 하고 느꼈다. 그는 열심히 다양한 레퍼런스들을 인용하며 온라인상에서 다수의 사람들과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으나 그럴수록 더욱 버거움과 좌절감을 느꼈다.

'잘못된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비난 혹은 비판하는 사람들에 맞서서, 그것이 작은 부분일 뿐임을 증명하기 위해 해야 하는 노력이 너무 많아. 근데 그런 노력을 해도 듣지 않을 사람 안 듣는 것도 좌절이지. 중요한 건 현실에서 사람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온라인상의 대응을 하는 시스템이나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도 좌절감을 느껴. 그날 내가 온라인으로 게시판에 열심히 노력해서 서너 명 설득을 했다고 한들, 아예 의대 교육현장에서 잘못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악의적인 폄훼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그 내용이 재생산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

정민은 아무리 현장에서 치료를 열심히 하고, 온라인상에서 한의사의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한다고 한들 주변 환경이나 외부 요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적 인식의 벽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고, 그럴수록 좌절감과 열등감은 심해졌다. 그렇지만, 그대로 머물고 싶지는 않았다. 과거의 그의 삶에서 깨달았듯, 피하지 않고 무언가 부단히 노력하다 보면 그것이 조금 더 나은 모습이 될 거라고, 말 그 자체의 '노력'을 믿고 싶었다. 혼자서는 역부족이다.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체계를 만들고 교육을 통해서라면 인식의 변화가 조금은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일차 목표는 먼저 나 자신이 노력해서 치료적 역량을 갖추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적어도 내 앞에서 틀린 소리를 하는 사람에게 제대로 반박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이론적 역량을 갖추는 거지. 마지막 목표는 그런 역량들을 바탕으로 교육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현재 한의사들이 맞닥뜨린, 열등감을 느끼게끔 만드는 환경을 바꿀 수 있게 노력하고, 하다못해 주변 한의사들이 느끼고 있을지 모르는 열등감이 해소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되고 싶어. 그게 내 궁극적인 목표야.'

IV. 논의

본 연구를 통해서 연구참여자들이 살아온 삶의 생생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었다. 전문직종에 종사하면서 타인들로부터 늘 좋은 삶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선망을 받으리라 생각할 수 있지만 한의사가 되고, 한의사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은 열등감을 비롯한 다양한 고민들을 가지고 인생을 헤쳐 나가고 있었다.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성공하지 못하여 차선책으로 한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치르게 된 점, 이후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을 진료함에 있어 다양한 영역에서 제한점이 많아 힘들다는 점은 연구자가 인식하고 느꼈던 열등감의 내용과 동일한 맥락이었다. 하지만 한의사가 되기 이전에 경험했던 열등감과 관련된 삶의 맥락은 두 연구참여자의 의미가 조금 달랐다.

현진의 이야기에서는 전형적인 한국 사회의 입시위주 대학 진학에 영향을 받은 학업 성취와 관련한 열등감이었다. 치과의사인 아버지의 엄격한 양육과, 의과대학 진학에 대한 압박감 속에서 현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취로 인하여-물론 그 성취 자체가 충분히 높은 수준의 성취였음에도 불구하고-좌절감과 열등감을 경험했으며 이후 대학 생활과 한의전에서의 유급에 이르기 까지 학업성취와 관련한 열등감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현진의 인생에서 함께한 열등감의 경험이었다. 하지만 면허 취득을 위한 한의사 국가고시 이후 성취와 관련한 열등감은 더 이상 느끼지 않았다. 이후 한의사가 되고나서의 느꼈던 열등감은 의사집단과의 비교로 오는 열등감 보다는 다수의 의사집단에 의해 의료인으로서 배제되는 경험을 가진 소외감이라고 언급한 점은 상당히 주목해볼직하며 의미가 있다. 현진의 내러티브 중 '경쟁도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경쟁하고 비교를 하지, 이 건 아예 싸움판에서 제외시켜놓고 어떻게 싸우라는 거야.'라는 그의 언급은 전형적인 다수의 집단에 의해 소수 집단을

배제하는 프레임의 논리를 그대로 반영한다. 고무적인 사실은 현진은 동료 한의사들과의 교류에서는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임상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다양한 정보들을 습득하며 배우고 교류함으로써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정민의 이야기에서는 아들리의 기관열등과 관련된 개념을 반영하는 어린 시절 열등감 경험을 엿볼 수 있다. 남들보다 체구가 작고, 힘이 약했던 정민은 사회화 과정에서 나타난 또래 집단과의 부정적 경험을 내재화하는 과정에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강한 모습에 신경을 쓰게 되었다. 이러한 남들에게 비추어지는 '강한 내 모습'으로서의 노력은 심리적 측면에서 역기능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신체를 단련하여 체력을 증진시키고 더욱 건강한 몸을 만드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 내어 이는 열등감 극복에 실질적인 노력을 더하면 뛰어넘을 수 있다는 긍정적 강화 경험을 제공하였다. 이후 한의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에서는 정민은 여자친구-현재 배우자-의 역할에 대해 한의사의 사회적 인식과 관련한 직/간접적 경험을 동시에 느끼며 열등감을 느끼게 된다. 정민은 의사인 배우자를 통해 그녀 주변의 의사로부터 한의사의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해듣게 되면서, 또는 본인이 자주 드나드는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의 한의사의 사회적 인식이 '처참'하다라고 표현하면서 한 두 사람의 인식개선 운동으로는 바뀔 수 없다고 느끼며 좌절했다. 이에 본인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진료 분야에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추후에는 교육을 통해서 인식개선에 앞장서고 싶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아들리는 인간을 능동적인 존재로 보았다⁹⁾. 아들리는 인간이 최종적으로 사회적 관심(공동체감)을 가지며 살아가는 삶을 이상적으로 보았다. 사회적 관심은 타인의 안녕에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하는 태도이다¹⁰⁾. 누구나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으로서의 열등감은 그것을 극복하고 보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노력이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며 결국에는 공동체감을 가진 개인으로서 성장하게 하여 사회에도 기여하는 완전한 인간을 추구하기 위한 과정인 것이다.

연구자의 열등감의 경험을 포함하여 현진과 정민의 서사는 각자 처한 열등감에 매몰되어 일, 학업, 대인관계 등을 회피하게 되는 열등감 콤플렉스로 빠지지 않고, 다양한 긍정 경험과 성취의 누적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추구하려는 과정을 엿볼 수 있다. 한의사의 직위보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

학원 진학, 진료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동료 한의사들과의 교류, 잘못된 시선을 바로 잡으려는 대외적인 노력들은 아들리 심리학에서 언급하는 사회적 관심으로의 확대하는 생활양식으로서 개인의 열등감을 넘어 공동체에 기여하는 삶으로서 의미가 있다.

1. 개인적 정당성

연구자를 비롯한 두 연구참여자는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한의사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다양한 열등감의 경험을 공유하며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 속에서 열등감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심층 면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지난 과거의 삶 속에서 열등감에 대처해왔던 과정들을 되짚어보면서 당시에는 힘들고 괴로운 좌절감과 실망감, 자기 부정에 빠지기도 하였으나 본인이 원하는 것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 노력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성취와 성과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눈에 띄는 큰 성취가 직접 드러나지 않더라도, 연구참여자들이 느끼는 작은 성취감과 타인의 인정이 누적되어 긍정적 강화로 작용하여 열등감에 깊이 빠지지 않고 변화를 위한 다른 행동에의 전념을 이끌어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실제적 정당성

과거 연구참여자들의 삶에서, 그리고 현재의 한의사로서 근무하면서 느끼고 있는 열등감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주로 나타났으나 변화를 위한 행동을 개시하고 시간을 들이는 과정을 통해 앞으로 한의사로 살아가면서 본인에게 어떤 도움이 될 행동을 취할 것인지 결정해준다는 점에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한다. 두 연구 참여자 모두 주변 개원의와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진료 분야 이외의 유명한 개원의들과 학술 교류를 위한 기회를 자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진료현장에서 본인의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목표와 성과는, 본인이 일차진료의로서 진료역량을 충분히 갖추게 되어 환자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의료인으로서 더 이상 열등감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3. 사회적 정당성

본 연구의 사회적 정당성은 열등감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와 관련한 내용과, 한의사의 사회적 인식과 관련한 내용이다. 첫째, 비교를 통해서 느끼는 열등감이 아닌 '소외감'의 경

험은 연구자가 인식했던 열등감의 다른 측면을 정확하게 지적함으로써 개인 차원의 열등감이 아닌 집단과 사회구성원의 문제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정하는 의료인에 포함된 한 직군으로서 한의사는 국민 보건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사회적 역할과 높은 수준의 기여를 함에도 불구하고 다수 집단인 의사에 의해 비방과 폄훼로 인해 연구자와 연구참여자들은 임상현장에서 열등감과 더불어 소외감을 겪었으며 이는 개인차원의 문제해결이 아닌 사회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둘째, 한의사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미 있는 노력들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앞서 언급한 소외감과 더불어 의료인의 주류 세력인 의사집단에 대한 '한의사 지우기'만큼이나 일반 시민들의 한의사에 대한 근거 없는 억측과 비방들이 만연하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배적인 한의사의 부정적 인식은 한의 치료가 의료에 기여할 수 있는 입지를 점점 좁히게 만들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한의계에 적지 않은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한의사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로잡는 데 관심 있는 몇몇 한의사의 움직임보다는, 한의치료에 대한 보장성 확대와 한의사의 기회적 평등을 부여하도록 촉구하는 협회의 움직임이나 정치적 접근이 절실하다.

4. 한계

본 연구의 제한점이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점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직종으로 살아가는 한의사의 열등감의 경험은 다른 직군에서 경험하는 열등감의 경험과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 타인과의 비교로 인한 열등감의 경험의 양상은 현재 직업과 상관 없이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연구참여자 선정에 있어 기타 다른 전문직군과의 비교, 특정 직군과 상관없는 다양한 직군을 아우르는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여 열등감의 경험을 공유한다면 다채로운 이야기가 가능할 것이다. 혹은 한의사 내에서도 연구자와 같이 전문성을 가지기 위한 수련중인 전공의 집단이나, 임상년차가 조금 더 오래 된 개원의 혹은 공공보건에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공중보건한의사들의 경험들을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더욱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둘째, 내러티브 연구자체가 경험의 일반화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 연구참여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공유하고, 다시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지만, 다른 질적 연구 방법 중 조금 더 깊은 경험의 이해를 꾀하는 현상학적 탐구나 특정한 사례를 다룬 사례연구로 진행이 된다면 더 많은 열등감 경험들을 깊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의사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반적인 열등감 경험의 본질을 밝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참여자가 각각의 처한 다른 상황과 특별한 맥락에서의 생생한 열등감의 이야기를 알아보고자함으로써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맥락에서 경험하는 열등감이 어떠한지 독자들에게 하여금 본인의 열등감을 대처하는 방식을 되돌아보고자 하는 계기를 주었으면 한다.

REFERENCES

1. Lee HB. A Qualitative Case Study of Inferiority Nuclear Feeling. The Korean East West Mind Science Association. 2017;20(1):119-37.
2. Kwon SM. Personality Psychology for Understanding Human Beings. Seoul. Hakjisa. 2017.
3. Jeong M, Noh AY.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Inventory of Responses to Inferiority Feelings (IRIF).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10; 22(2):351-67.
4. Lee MH, Kim JS. The Effect of Adlerian Group Counseling Program on Responses to Inferiority Feelings Among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18;25(2):61-89.
5. Kim HS, Lee JH, Jeong KY. The Mediating Effect of Positive and Negative Automatic Though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feriority and Clingines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012;13(6):3009-3022.
6. Im MO, Choi IH. A Phenomenological Study on Middle-aged Women's Experiences of Overcoming Inferiority Complex through Art Therapy -Based on Adler's personal psychology-.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2020; 27(1):87-108.
7. Park SY. Using Narrative Inquiry as a Research Method. Seoul. Hakjisa. 2017:4-5.
8. Yeon JS, Kang HS, Park SW, Jo DJ, Jo IS. Engaging in Narrative Inquiry. Paju. Gyoyukgwahaksa. 2015:48.
9. Cha EG. Inferiority of the child and Its Overcoming Measures - Focusing on the Theory of Alfred Adler. Theology and Praxis. 2015;46:293-312.
10. Kim EH, Jang YJ. Adlerian Counseling for Women Experiencing Hwabyung: Changes on Hwabyung, Depress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015;20(4):469-95.